성경 (하나님 /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어떠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죄입니까?

What Does the Bible (God / Jesus) say about getting divorced? Is it a sin?

날짜: 2009년 2월 16일 월요일

제목: 자주 하는 질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맨 처음 창조시 때부터 시작했고 이것을 가족과 문명 그 자체의 기본으로 모든 문화에서 인정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가지 성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 (창세기 1:27, 5:2),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심은 두 성별이 서로 유리함을 얻게 하기 위한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각자 다른 힘을 주며, 그러므로 그 관계와 그 가족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언제고 두 성이 합치면, 그들이 한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4; 마태복음 19:5; 고린도전서 6:16).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간 한몸으로 합치는 결혼서약을 내놓으신 또 한가지 이유는 그들의 자손들이 경건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말라기서에서 말해 줍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 [신랑과 신부]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영어로는 "Has not the Lord made them [husband and wife] one? in flesh and spirit they are his. And why one? Because he was seeking godly offspring"(말라기 2:14절과 15절) [간단히 말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여 결혼을 정하셨음].

슬프게도, 결혼생활에서 어떤때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을가지고,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을 일으키며 분배와 이혼까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 창세기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이혼을 해야되는 이유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때는 부부사이에 관계가 너무도 사나워져서 얼마나 서로 상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피할길을 용납해 주신 것이 이혼인데, 그것을 모세법 아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출애굽기 21:11; 신명기 24:1).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용납한 그 기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는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9:8).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에대하여 수백년을 거쳐서 논했고 또 토론해 왔으며, 그리고 교파에 따라서 이점에 대한 믿음들이 다릅니다. 그 교훈들 중에서 좀더 해로운것을 붙들고 있는 어떤 교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법에서 허락하시는 똑같은 자유도 용납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어떤때는 결혼파트너나 혹은 아이들의 건전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이혼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혼에대하여 또 하나 잘못 가르치는 교훈은 만약에 누가 부부간에 **간음** 했을때만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이 교훈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시대의 **문화**를 모르거나 혹은 성경의 전체 범위에서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 것 등등을 모르고 읽은 데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깨닫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경우에 연결되며, 그의 시대 문화와 모세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슨 점치는 책들이나, 혹은 독단적인 말들을 쭉 기록한 격언서들 처럼 취급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성경구절들은 한구절만 가지고 독단적으로 세워질수 없고 서로 연결되는 모든 다른 구절들을 합치서 성경의 장점을 제목해야 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어느 주제이든지 그 사실을 참으로 깨닫으려면 거기에 대 한 모든

구절들이 그 주제에 어떻게 서로 관련되고 있는 가를 자세히 살펴야 되며, 그리고 이 뜻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록들이 마태복음 5:31절과 32절, 19:3-9; 마가복음 10:2-12; 그리고 누가복음 16:18절에 있는데, 구약성경과 신약 다른데에 있는 재료들도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때의 문화, 랍비학의 위대한 유대인들의 교수, Rabbi Hillel - 랍비 힐 (ca. 60 B.C. 주전 - 20 A.D. 주후), 그때 무림에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아내가 어떤 일이든지 남편에게 거슬리게 하면 이혼할수 있다고 가르쳤씁니다. 그때엔 이러한 이혼상태가 "잘못이" 아니었으며, 이혼이 사회에 문제꺼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마태복음 19:3) 하고 질문하는 데에서 예수님때의 문화에서는 쉽게 이혼할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결혼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을 승진하기에 가장 유리한 대답을 골라서 하신 것입니다(마태복음 19:4-9).

여기서 매우 중요한점은 예수님께서 이혼과 결혼에대한 완전한 가르침이 하나도 기록되지 안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대신 그가 질문한것만 대답 하셨고 그때 문화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가짐을 들여다 보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결혼에 목적이 무었인가를 볼수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셨는데 무조건 그 세대의 문화의 연결을 베버리고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이 허락된 것을 떠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새 가르침을 제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혼에대하여 완전한 가르침을 주셨다면, 모세법 아래서 여자의 권리와 수여 요구도 말씀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답에 여자에대한 것은 말도 꺼내지 않으신 이유는 결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강조하는 데에나 혹은 질문의 대답에 그 말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것입니다 (마태복음 5:17).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알려면, 우리에게 성경 구절들과 논리 [이치에 맞는것]가 필요합니다. 성경과 역사에 결혼에 대한 의도는 양편에 유일함과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 결혼 사이가 몹시 악화되면 그중에서 하나가 혹은 둘다 또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이 필요하고, 그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결혼을 해제 할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이 용납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성서에 이혼에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에 대하여 완전히 알려면, 모세법에서는 한 남편이 한 아내 외에 또 다른여자와 결혼할수 있는 것을 아직 금지 하지 안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1:10; 레위기 18:18; 신명기 21:15).

> **출애굽기 21:10절과 11절**
> **(10)** 만일 상전이 달리(another woman-다른여자에게) 장가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 **(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밝게 볼수 있는 것은 먼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서약을 하면,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각자에 책임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대한 책임은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시대 문화에 아내로써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책임을 모든 사회가 편히 다 알고

있었고 또 여자에게 이혼할 수 있다는 특별한 허락을 그 고장에서든지 혹 그 당시 법에서든지 혹 그 당시 문화에서 수여하지 않는 이상에 여자가 이혼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조해서, 여자의 책임을 짐작할수 있고, 출애굽기 21:11 절에서 남편의 책임을 명확하게 말한 것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지 않으면 그여자가 그 결혼에서 풀려 자유로 나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1절에서 말하는 세가지를 읽을 때 현대 문화로 생각하지 말고 구약세대 때 문화를 맑혀서 읽어야만이 완전한 뜻을 깨달을수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음식"은 매일 그여자들의 음식으로 그녀에 생명을 유지할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복"이라는 뜻은 의복뿐만 아니라, 혜택의 범위,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녀의 보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집살 돈도 없었고 하다못해 텐트도 살수 없었으므로 밤에는 두터운 의복을 입고 잠니다(출애굽기 22:27), 그럼으로 의복이 옷도 되지만 보호 물도 되었습니다. 남자는, 힘 닫는대로, 자기 부인의 의복과 안전 보호를 보충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셋째로 기록한 말씀, "동침," 이뜻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가 애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구약성경 시절 문화에 따르면, 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늙으면, 은행에 예금이나, Social Security-노인 보호금이나, 의료보험, 그리고 노인 보호소 같은 것들이 없었으므로, 그녀의 일생에 그리고 더구나 그가 나이 많아 힘이 없을때 안전과 보호를 그녀의 자손들이 보충해 주었습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자기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안으면 그녀의 자손을 끈어버림으로 그녀가 병들었거나, 다쳤거나, 혹은 늙었을 때 그녀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없이 하는 위험을 줍니다. 이러한 짓이 몹시 모진 행위었으므로 하나님이 이러한일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으로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잘못 취급할때는, 율법에서 그 여자가 자유롭게 떠나라는 것을 허락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1절은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에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심정을 모세율법에 토해놓으신 것, 곧 축복과 경건한 가족과 사회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묻기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율법아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씁니까?" 하시겠지만 그것이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연결되는 말들을 함당하게 깨닫고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6:14절과 15장; 갈라디아서 5:18). "율법"이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도덕적인 규율이 있고, 사회적인 규율이 있고, **헌법 규율**이 있으며 또한 거기엔 성전에 관련된 것과 제사장들 조직에 대한 규율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저주의 율법에서 자유로 풀어준 법은, 례위법률, 희생제 규율 뿐이며, 그 남머지 헌법과 사회 규율법들은 해제 되지 안했고, 그럼으로 신약성경에서도 구약에서 한 말씀들을 아주 많이 되풀히 해 놓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도적질 하지말라, 간음 하지말라, 탐내지 말라, 안전치 못한 집을 지지말라, 가난한자를 구제하라, 악한짓 하는 자를 처벌하라, 하는 **계명**들 등등을 지금도 준행 하라고 합니다. 한층 더나가서, 율법이 가족과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한것입니다 (로마서 7:12).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며,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자유가 되지 않했으며, 또한 그의 소원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간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혼에대하여 신명기에 기록하셨는데,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때 어떤 특별한 이유는 표현 하시지 않했습니다.

> 신명기 24:1
>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하나님께서 "수치되는" 그 "일"에 대하여 그것이 무었이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거기에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수 있었겠지만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뜻일까요? To Rabbi Hilled -랍비 힐런 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시대 때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남편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내를 내버릴 수 있는 것으로 이혼을 취급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과는 정 반대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할수 있는 이유를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만 빼놓고는 아무것도 주지 안했습니다. "간음"이 이혼할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생활에 풍화를 격고 간음까지도 견디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는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마음 중심에서 나지 어떠한 "이유"로 부부간에 강제로 이혼해야 된다고 한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사람은 마음이 몹시 완악하며, 상대방이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단계까지 이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중심은 사랑이심으로 사람들을 학대받는 교제에서 강제적으로 그저 머물러있게 하시지 안으십니다. 만일 누구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해 지면, 상대방이 위험한자를 피해서 자유로 떠날 수 있는 길을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에 와서는, 이혼에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으며, 그리고 남자들이 자기부인과 이혼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였고, 번번히 다른여자와 같이 있고 싶어서 이혼 했습니다. 헤롯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 했었습니다 (마가 6:17). 종교적인 주권자들이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묻고는, 그리고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모세 (실은, 하나님이)가 이혼을 용납했는데,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종교적 주권자들은, 하나님의 종교가 그들에게는 대부분 하나에 고등기관의 공부하는 물질로 무엇을 허락한것으로만 생각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회에서 가족들을 이루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포부를 재건설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사회에 가족들을 완전하게 다시 세우는 것에 몹시 갈급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사회에서 한참 유행된 "율법의 해석이 내가옳고 네가 틀렸다" 하는 마음가짐들을 아셨고, 그럼으로 거기에다 더 보조 하시고 싶지 않아서, 종교 주권자들 에게 그렇게 대답하신 것인데 결혼에 대하여 어찌나 고귀하게 말씀 하셨든지 자기 제자들 까지도 크게 놀래 가지고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10).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포부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종교 주권자들에게 하신말씀.

> **마태복음 19:4-6**
>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 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층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약에 누가 성적 불후[다른여자와 성욕 때문에]로 자기 부인과 이혼하면, 그자는 간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그가 산상 설교 하실때에도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31절과 3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욕에 대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슨 우주에 미치는 새로운 이혼법 기준을 세우시려고 하신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매년마다 되살려 주는것, 곧 모세법에서 결혼에 대한규율에 어떻게 여자들을 보호하고 보조 하라는 것을 하기 싫어서 무시해 버리고 여자들을 매정하게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년마다 모세법을 되풀히 하는 것을 준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의 문화에 연결된 "쉽사리 이혼하는" 남자들 에게와 하나님께서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잘못 없는" 핑계를 잡아서 이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지 말라기서에 기록한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I hate divorce-나는 이혼을 미워 하노라" (말라기 2:16)라는 말씀만 하셨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서는 이혼할수 있는 단 한가지 이유는 부부간에 누가 간음하면 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번역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점에 대하여 이 짧은 기사에서는 번역에대하여 깊이 파고들기가 너무 벅찬 일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완전하게 확실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화제꺼리에 대한 정보를 말씀 전체에서 모아가지고 그점에 대한 사실을 캐 내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세울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점을 알수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것을 다른 복음들 에서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 보아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 하시기를 만일 누가 이혼하고 다른사람과 다시 결혼해도 간음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마가복음 10:11절과 12절). 마가복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혼하고 재혼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복음에서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이혼한 경우에는 재혼해도 간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그가 가르친 완전한 사실을 알려면 다른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모아서 서로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그 제목에 대한 완전한 사실을 알려면 성경 전체에서 그점에 대하여 말하는 구절들을 모아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폭력을 받으므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여자보고 더구나 모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떠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와 같이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해가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심정과 이토록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어느 제목이든지 성경전체가 다 같이 맞아야 되며, 그리고 더구나 이혼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점을 밝혀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도 반박하지 안했습니다. 그대신 하나님의 중심을 명확하고 간결히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7:10절과 11반절
(10)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11반절)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구절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이혼은 상처를 입히는; 파괴적인 것입니다. 한거름 더나가서, 만약에 그 부부가 각자 상처 받은 것과 프라이드[자존심]을 놓아주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의 힘을 얻어서, 그리고 다시 단합하면 여러 가지 "견딜수 없는" 상태들을 견딜수 있고 무너진 결혼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뜻있어 보이는 분들이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굽힐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혼하면 안된다고 단정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다른 구절들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연결 되었는가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놓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 바로 그 아래 장에서, 성경말씀에, "그러나 그니가 갈리려거든..."에 대해서 모세법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만,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도무지 함께 살수없으면 헤어질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과 이혼하지 말라고 기록한 다음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만일 여자가 갈린째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11). 다시 말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아이디어 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말해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에게 이혼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갈리지[이혼]말라고 한 바로 그 똑같은 장에서, 혹은 갈리려거든 재혼하지말고 그냥 지내든지, 해놓고,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27절 그리고 28절).[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리지[이혼] 말라," 하셔놓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혼을 하거든 재혼을 하지말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엔, 만약 결혼을 해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약간 혼동되지 안씁니까? 성경이 혼동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인생이 혼동되며 서로 교제하는 것들도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단 한가지 위치만 세워 놓고, 꼭 그렇게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느 부모와 같이, 그의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이 어느 상태에 있든지 도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그의 아이디어를 분명하게 세워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서서히 여유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장래에 가장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가장 높은 규준을 성취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햄 하는일" 은 거의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이혼하는 것이 쉬운일 같고, 사람들 생각엔 이렇게 힘들게 사는것보다 결혼을 파해버리면 살기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대부분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에게 더구나 한참 고통스런 결혼 상태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지금 현재 살고있는 사람보다 나을 것 같지만, 통계학을 보면 두 번째 결혼에서 이혼율이 첫 번째 결혼에서 이혼율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첫 결혼 상대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그렇게

큰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 옛 만화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적을 만났는데 그들이 우리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부부가 이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읽어본것처럼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혹은 배우자나 혹은 아이들을 보호 하기 위하여 이혼 할수있는 것을 용납 하십니까? 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성공적인 결혼을 이루고자 하여 좀더 서로 간에 시간과 정력을 쏟으면 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뱀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침범하고 그들이 낙원에서 넘어진 후로부터 부부 관계와 결혼 서약에 많은 것들로 찌어 누르는 압력으로 인하여 모든 결혼이 현재까지 침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천사**들을 보면, 결혼도 안하고 재생산 도 안하는데 (마태복음 22:30), 사람은 결혼서약을 해서 재생산 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 해야만이 결혼 관계를 잘 이루고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양육할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알기때문에 결혼을 파괴하며, 그가 부모와 자식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려고, 결혼 관계에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전투의 병사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결혼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부부들이 대부분 그들의 다른점을 가지고 서로 간에 유리한점과 보충하는 면으로 사용할줄을 한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대신, 그 다른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정직하게 대하지 않고 서로 숨기며, 용서를 거절하고, 그리고 보통 생활하는 태도가 참으로 자신 - 희생적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사전에 필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 함으로 자극을 받아서 **서로 순종**하는 것이며 (에베소서 5:21), 그리고 거기에 겸손, 존경, 그리고 그 결혼생활 안에 있는 사랑, 서로 함께하는 그 훌륭한 관계외에 그 기쁨, 한 부부가 하나님께 능력있는 기도를 올린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7).

좋은 결혼 관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맹렬하며, 그리고 유혹과 사욕의 약함이 너무나 공통됨으로, 노력없이 좋은 결혼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맨처음 사랑에 빠질 때 화학 반응 때문에 느끼는 달콤한 기분으로 인하여 이것이 "저절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결혼이든지 성공적으로 좋은 교제를 이루려면 힘드려 노력하지 않고는 이룰수 없습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서로 배워야 되고, 우리가 서로간 교제관계에서 잘 **교통할줄 아는 기술**을 늘려야 되고, 참을성과 나만 위하지 않는 것을 서로 연습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단합하여 협력할줄 아는것에 노력해야 되고, 서로간에 좋은 점을 밝혀 주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간에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서로 실행하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이혼을 하지 안해도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리스도 인들의 결혼에 대한 기준의 수준을 좀더 높게 그린 초상화를 그려서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의 영광스런 진열 작품이 됩시다!